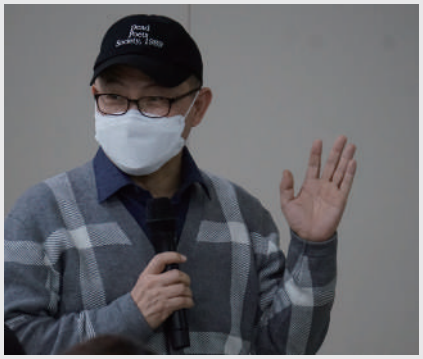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21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01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강윤석 위원님과 함께하는

2024 사업계획 2차 피드백

재활의료, 통합의료, 경영지원

(01.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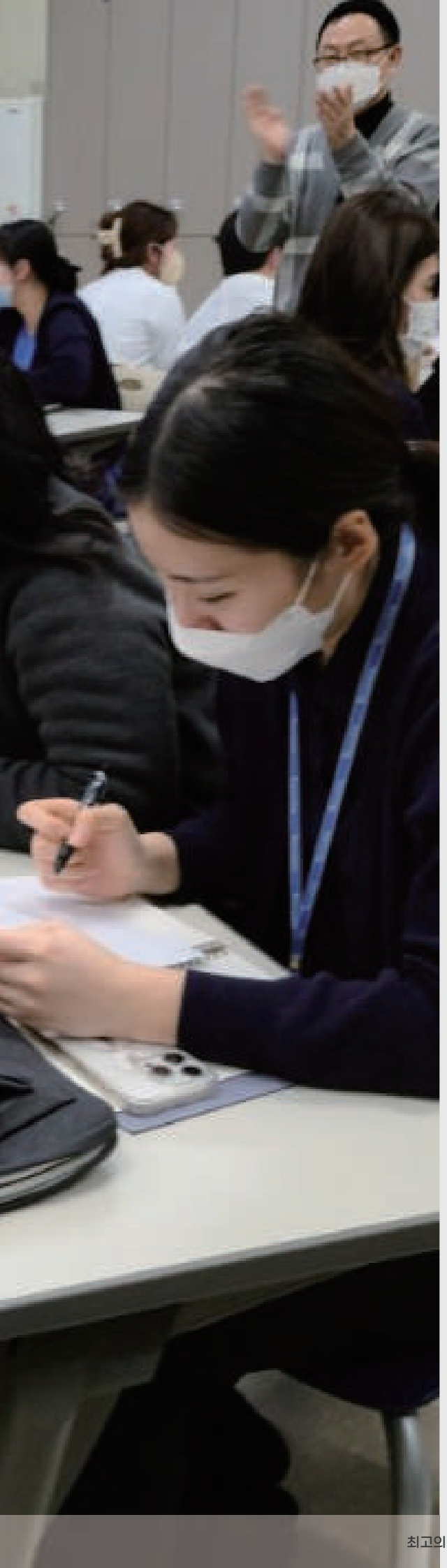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4사업계획 및 OKR수립

경영지원센터 워크숍 (01.26)



경영지원센터 2024사업계획 및 OKR수립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2024사업계획은 이론적인 교육을 시작으로 환경분석 및 SWOT분석을 진행하였고, 성장전략 및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사업방향 수립으로 과제별 실행계획을 진행하였고, 12월 1차 피드백에 이어 지난 1월 초 2차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강윤석 위원님의 피드백을 통해 기획하는 방법과 목표, 세부실행 방안을 수정 보완하여 이날 최종 점검을 받았고, 이를 통해 2024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OKR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OKR 돌아보기 시간도 함께 가졌는데, 처음 했던 작년에 비해 올해 한 층 더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4년 임상연구심의위원회 회의 (01.24)

1월 24일, 2024년 임상연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2019년 '임상연구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여 본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하고 연구의 계획부터 결과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감독,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면 형태로 심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IRB 사무국 및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최현희 위원장, 김연희 전문위원 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24일에는 책임연구자인 백선미 병원장님의 연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신속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최현희 위원장(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 학과장/IRB위원장), 박장수 위원(성공회 서울산교회 신부), 김연희 전문위원(재활의료원장), 배은숙 위원(가정의학과 진료부장), 김지헌 위원(사회사업팀 파트장/IRB 사무국장) 총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지혜 위원 참관/사회사업팀 부팀장,IRB 간사)

심의 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획득했는지, 연구대상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잘 수립되어있는지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승인된 연구의 수행과정에서도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심의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고 늦은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전환코치 양성 교육 실시 (01.27)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은 미션인 '우리는 누구나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실현을 위해 중도장애인의 병원과 일상·사회 연결 그리고 중도장애인의 활동 플랫폼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활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하여 힘든 재활치료를 거친 후 퇴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과 치료에만 전념하게 된 환자분들은 퇴원 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게 되죠.

이 공간(노운기념 전환홈)에서 중도장애인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일상생활 연습을 통해 적응력을 높여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만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원 준비과정을 점검하고 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와 사회적 어려움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체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상·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전담 할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7일 토요일 오후, 전환코치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교육 이론 7과목 중 한 과목을 재활학박사 박종균 교수님을 모시고 '중도장애인과 재활'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인의 분류, 중도장애인, 유형 그리고 재활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슬기로운 재활생활
웃음 레크레이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 (01.06)

1월 첫째 주 토요일,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님의 웃음 가득한 노래교실, 색소폰 연주자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이자 레크레이션 시간,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직원이 함께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목청껏 노래하고 싶었던 마음을 맘껏 펼친 신명나는 날이었습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1.05 / 01.08 / 01.10 / 01. 12 / 01.15)

박○○님은 경수척수 완전마비 참여자로 운전면허 취득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면허지원센터에서 개별운동능력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면허취득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진행 중에 있으며, 1차 학과시험 합격, 2차 기능시험을 합격하고 2월에는 도로주행 연습을 통해 마자막 3차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 최종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있으나 하지장애로 인하여 면허조건을 바꾸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바뀐 면허로 운전할 생각에 매우행복해하여 인솔한 저희도 좋았습니다.

면허조건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 따라 면허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조건 뒤에 알파벳으로 구분하여 집니다.

오토차량으로 운전하는 조건은 A, 청각은 E,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운전시 손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작동해야하는 운전기기가 필요한조건) F, 우측방향지시기 H, 왼발로 엑셀을 작동하는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조건 I, 특수제작 및 승인차 G 가 조건이 뒤에 붙게 됩니다.

저희병원 참여자는 대부분 척수장애 A.F 나 뇌병변 편마비A.I 혹은 A.H 가 많이 붙습니다.



2024년 1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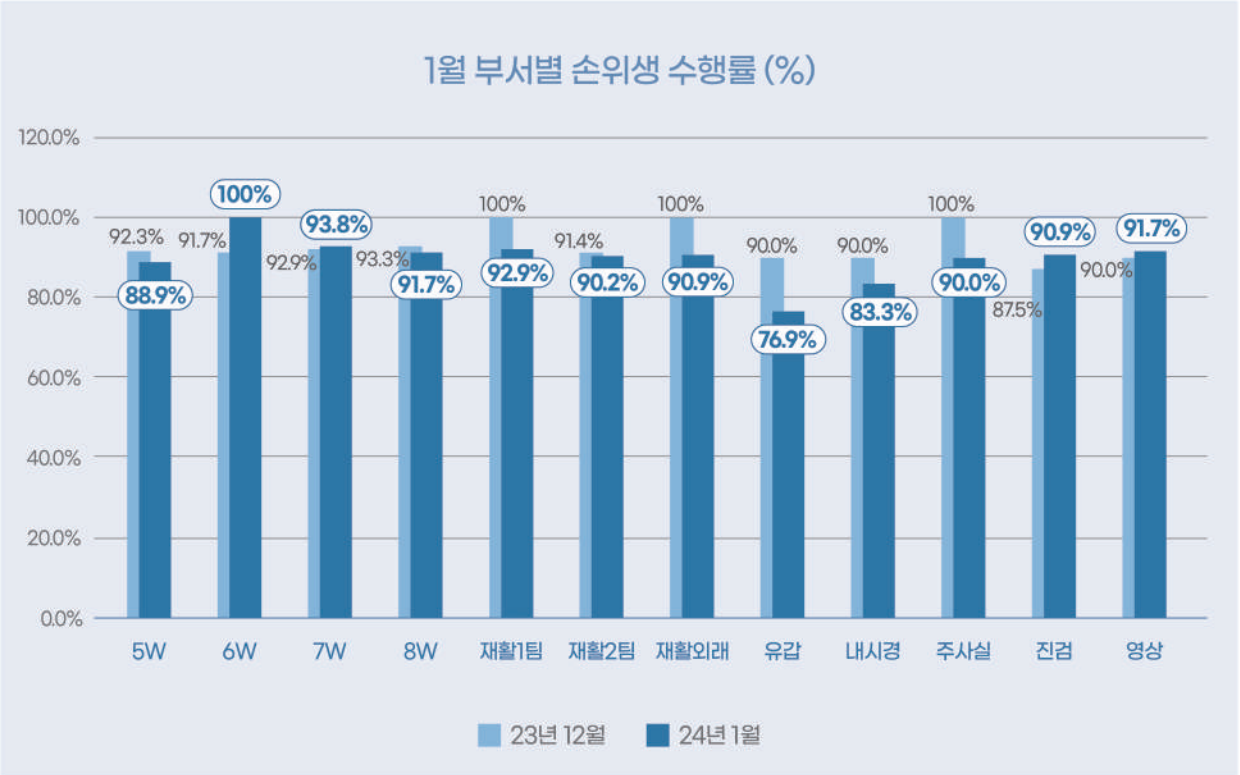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01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3년 12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50	135	90.0%	**- 3.4%**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4년 손위생 우수부서
분기별 선정 안내



손위생(Hand hygiene)은 의료관련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감염관리팀에서는 올바른 손위생의 습관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손위생 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월 선정하였던 손위생 우수부서를 2024년부터는 분기별로 선정하여
병원장님과 기념 촬영 후 사진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선정 방법

**매 분기 3개월간의 손위생 수행률 결과를 취합하여
손위생 우수부서 선정**

1·2·3월 결과	→ 1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선정
4·5·6월 결과	→ 2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선정
7·8·9월 결과	→ 3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선정
10·11·12월 결과	→ 4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선정

손위생 우수부서 선정은 분기별로 변경되나,
손위생 수행 관찰과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게시는 매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2024 손위생 부문 대상**(개원기념식 시상)은 23년 11월 ~ 24년 9월까지 총 11개월 동안의
손위생 수행률 결과를 취합하여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재활치료1팀 강동혁 부파트장 (01.16)



이벤트 프로그램

폰으로 제작하는 2024년 탁상달력 만들기 (01.25)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폰으로 제작하는 2024년 탁상달력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전에 가족과 함께했던 일상, 생일, 여행 등 핸드폰에 들어 있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24장을 준비하였고, 돌아가며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공유하는 즐거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진 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각자 취향에 맞게 달력 디자인도 고르고 직접 사진을 배치하며 소근육을 자극하였으며 각자 사진에 담긴 추억을 공유하며 생활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두 달 동안 행복했던 그 날을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해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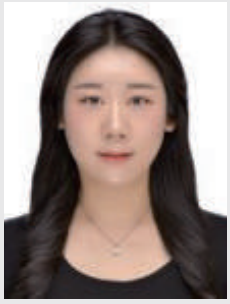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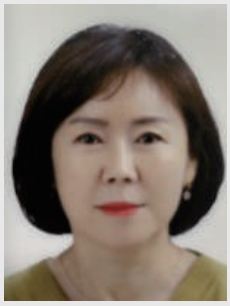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입니다.
1월의 신규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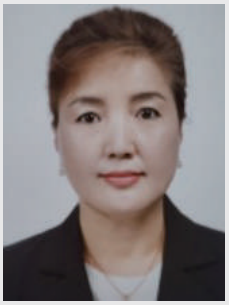

(사)나행동 이재욱 사무처장


재활간호팀(6W) 권오기 간호사


재활간호팀(6W) 한정윤 간호사


재활간호팀(5W) 민정원 간호조무사


경영지원센터 박기성 경영고문


재활간호팀(8W) 서예림 간호사


영양팀 노유경 조리원


재활간호팀(7W) 이가운 간호사


재활간호팀(5W) 고민희 간호사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백선미 병원장님
부산광역시장상 표창장 수상 (01.16)

이번 부산광역시장상 표창은 지역복지지원체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인 「해운대에On보살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노력'에 큰 공을 인정받았고, 해운대만의 통합돌봄 지원 체계 마련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THE 따뜻한 내일을 위한 희망 '위기가정 재기지원'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더 따뜻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의료비(간병비) 지원 선정 (01.30)

황○○ 참여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로 민간보험이 없이 의료비(월300만원)와 간병비(월 450만원)을 고스란히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부담감을 호소하여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외부재단에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첫 1월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간병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원받아 간병비 부담이 줄게 되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용 프로그램 (01.19 / 01.23)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4명이 참여하셨습니다.









나행밥상 두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02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산채비빔밥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두 번째 이야기...

'산채비빔밥'

나물 반찬을 안 먹어요. 비빔밥을 주면 먹지 않을까요?
입맛 없을 때는 비빔밥이
누구나 좋아하는 비빔밥 한번 해 주이소~





위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요청하신 비빔밥...

오늘은 다양한 비빔밥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신
산채비빔밥을 밥상 위로 초대해 보았습니다.

각종 산채 나물과 시금치, 콩나물 등을 불리고 다듬어서,
볶은 다음 밥 위에 둥글게 담아 화룡점정으로 계란 프라이를
딱 올리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산채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산채에는 풍부한 섬유소와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말리고 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양 성분이 농축되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생리 활성 물질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산채비빔밥은 이러한 자연이 주는 선물을 우리 몸 안으로
쏙쏙 들여놓는...조상들의 슬기로움과 지혜, 멋이 깃들어
있는 음식입니다.



산채비빔밥으로
몸 안에서는 영양 성분을 쏙쏙 흡수하고,
입 안에서는 맛의 즐거움을 쏙쏙 받아들여,
건강과 행복감이 쏙쏙 자라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 봅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스물한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21

챗GPT와 정면승부

우직한 실천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이 녀석을 처음 만난선 7개월 전 즘이다. AI가 글쓰기 영역까지 지배한다는 호기심에 찾아봤고,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은 다음에야 호기심이 사라졌다. 신기한 세상이었지만 나에게 특별함을 안겨다 주지는 못했던 기억을 남겼다.

그 뒤 며칠 후, 주말마다 서부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큰 아들이 과제로 고민중이었다.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설문항목이 문제였다. 녀석이 정한 주제는 '초등학생은 왜 야채를 먹지 않을까?' 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지구온난화, 경제, 과학 이런데 주제를 정했다는데, 이놈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정했다. 자기도 야채 안 먹으면서 무슨 야채타령인지? 아내와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녀석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어차피 지 숙제니깐.

설문항목을 정하는데 고민하는 녀석에게 내가 챗GPT 얘기를 꺼냈다. 당연히 처음 듣는 아내와 아이는 무슨 소리냐며 무관심을 주었고, 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어쩌면 좋은 답변을 제공할지 모른다며 컴퓨터를 켰고, 챗GPT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했다.

'초등학생은 왜 야채를 먹지 않을까?'
'초등학생이 야채를 먹게 하는 방법은 뭘까?'
(나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원초적인 질문만 했었다.)

이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고, AI는 '물론입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거침없이 답변을 내어주었다. 챗GPT에 초보자인 나는 여기까지였다. 이 답변을 가지고 아이에게 설문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라고 건넸고, 녀석은 그것으로 초등학생답게 어설프게 설문조사표를 만들었다. 아빠가 더 도와주고 싶지만 이미 AI의 도움을 받았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AI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뺏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이들이 앞으로 마주보게 될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고, AI가 더 삶의 깊숙이 들어올 것이기에 걱정을 길게 하진 않았다.

짧은 AI의 도움과 아빠가 알려준 구글 설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녀석은 멋지게 설문조사와 ppt를 혼자서도 완성하였고, 2주 뒤 발표를 통해 멋지게 마무리하였다. 개인적으로 수학영재원을 통해 수학학습능력 향상보다는 이렇게 조사를 하고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 설문과 제작을 하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 더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나는 티스토리라는 다음블로그에 챗GPT를 이용해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글쓰기에 도전하였고, 아쉽게도 AI의 한계를 느끼며 실패를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챗GPT와 친숙해졌고, 질문을 통해 얻어내는 정보를 재가공하고 편집하는 일에 익숙해져있었다. 물론 무료로 제공하는 3.5버전의 한계를 인식하며 그렇게 나에게서 챗GPT는 조금씩 멀어져갔다.

5개월이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두어 달 전쯤, 내 직장인 병원에서도 챗GPT를 활용하는 분위기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병원에서 무슨 AI가 도움이 될까라는 과거 경험의 편견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얘기치 못하게 챗GPT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원무팀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홍보팀에 챗GPT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병원에서 '글'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나는 반문이 들었다. '글'을 어떻게 AI의 도움을 받을까? 특히 영어에 기반을 두는 AI는 한글로 표현력이 부족했다. 더구나 여기는 병원이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쓰는 글들은 그 중에서도 감성적인 글, 병원만의 특색을 살리는 글, 개인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글들을 쓰는데, 어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조금은 갇힌 사고방식을 통해 그 직원을 만났고, 한 시간 가량의 학습과 실제 재현을 통해 내 사고의 틀은 변해갔다.

챗GPT에 대한 깊이는 당연히 나보다 깊었다. 그는 학습을 통해 챗GPT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재가공해서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무료 3.5보다 유료 4.0이면 훨씬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 직원의 인품이 워낙 착해서, 혹시 자기의 아이디어가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조심스레 얘기도 했고, 미안해하는 표정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나를 힘들게 하기 보다는 나를 편하게 해주려 한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이 변화를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살다보면 긍정적인 변화도 피하고 싶은 변화도 있다. 그렇게 세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달라지고, 어쩜 나는 챗GPT라는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길로 도서관에 가서 챗GPT 관련도서 5권을 빌렸다. 물론 이 5권을 2주 만에 볼 생각은 없다. 이 5권중 나에게 가장 맞는 책 2권을 독파하였고, 그렇게 나도 챗GPT를 나의 일상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몸(體)'을 움직이는 진통이 '깨달음(認)'을 가져오고,
> 깨달음이 와야 '지식(知)'이 탄생합니다.
> 변화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일으키기보다
> 손발을 움직여 우직한 실천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 만들어갑니다.
> _유영만《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위너스북)

챗GPT와 함께하며 많은 것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본질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글'로써 병원을 '그리는' 본질은 바뀌지 않을 테니.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4년 01월 31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